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
----------	----

발의연월일: 2026. 7. 9.

발 의 의 원: 박해정 · 이우완 · 진형익 · 김원일 · 이정희
박현재 · 강창석 · 오춘근 · 류성국 · 하경석
김인애 · 김우진 · 구점득 · 박영주 · 감규상
변보미 · 김수민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2026년 6월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표층수 직접 취수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질 오염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강변여과수와 같은 안전한 대체 취수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낙동강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시설 확충을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지원을 촉구함
-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 대체 농업용수 공급 등 주민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함
- 강변여과수 확충과 병행하여 낙동강 본류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경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2026년 6월 낙동강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경남 창원지역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로 인해 시민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오염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변여과수와 같은 안전한 대체 취수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지역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정수장 시설을 비교해 보면 취수 방식에 따라 녹조 대응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안군 칠서정수장은 40년 이상 된 시설로, 낙동강 표층수를 직접 취수하기 때문에 녹조 발생 시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악취 수돗물도 칠서정수장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강변여과수 체계를 도입한 의창구 대산정수장은 대규모 화학약품 처리 없이 친환경 정수가 가능하며, 녹조 독소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방식은 모래와 자갈층(대수층)을 통해 지하 20~40m까

지 스며들어 수십 일 동안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간접 취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녹조 독소,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을 자연적으로 걸러내어 1급수 수준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창원시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산정수장과 같은 검증된 강변여과수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변여과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창원 대산면, 창녕, 의령 등 낙동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수박·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거센 반발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취수 시설 확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수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 도입, 대체 공급로 전면 개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정부

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창원시 강변여과수 확충안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규모 강변여과수 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고갈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하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공함양 기법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조치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질 회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6년 7월 일

창 원 시 의 회